

# 독립운동가의 삶을 통해 본 항전의 기록

구술자전기록 비롯해 사료적 가치 높은 회고록 잇따라

해방 50주년을 맞은 올해엔 이제껏 독립운동연구의 적박했던 부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인물에 대한 개별적 조명은 일제 36년을 피나는 항전의 자랑스런 역사로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투철한 무장투쟁의식으로 광복군을 이끌었던 백산 지청천장군의 일대기를 딸 지복영여사가 저술한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문학과지성사, 본지 166호 참조) 같은 회고록은 그 당시 치열했던 상황을 낱말이 증언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의미있는 출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석린 민필호(1898~1963)의 삶과 사상이 담긴 글을 한데 엮은 《石麟 閔弼鎬傳》역시 항일무국의 일생을 살아온 독립운동가의 인생 역정을 통해 우리 역사를 관통한 지난했던 항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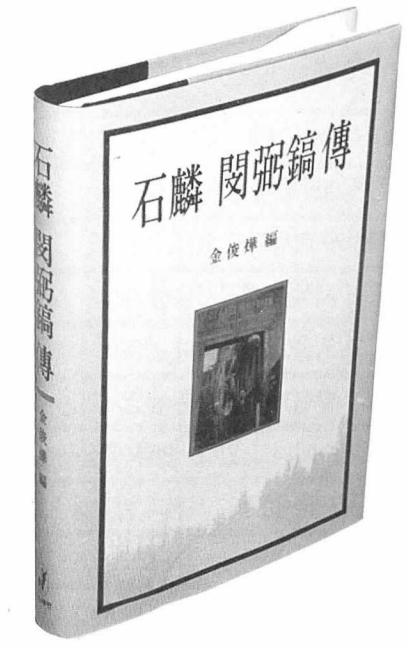
국가보훈처가 정한 '4월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민필호의 전기를 담은 이 책은 독립운동의 후배이자 그의 만사위인 김준엽(전 고려대 총장)사회과학원장이 직접 편집을 맡아 면면히 이어진 독립운동의 맥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시선을 끈다.

## 면면히 이어진 독립운동의 맥

이 책에는 생전에 석린의 구술을 질녀 민영숙(89년 작고)이 받아 적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나>를 비롯해 지인(知人)이 썼을 <석린 민필호 선생 약전>, 또 석린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국의교사화>, 석린이 독립운동가이자 장인인 신규식을 추억하여 쓴 <신규식 선생 전기>, 우리 독립투쟁을 도와준 외국인에게도 훈장을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명단을 기록한 <한국독립운동에 협조한 중국인사> 등 6편의 글을 모았다.

석린은 1911년 중국으로 망명, 중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상해에서 활약하다가 중국군사위원회 장개석 위원장 직속의 안전연구소에서 일본의 외교 군사에 관한 암호의 독해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다. 1940년부터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변공실장과 외무차장, 한국독립당의 선전부장, 의정원의원으로 중경에서 활동했으며, 해방 후에도 계속 중경과 남경에 남아 뒤처리에 힘썼고 대만에서 총영사직을 맡아 활약하다 귀국, 1963년에 영면했다.

석린 자신의 독립운동 이력을 기록한 <대한



민국임시정부와 나>에는 중국교통부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의 밀정을 탐지해 임정에 알리고 독립운동 진영의 연락책을 맡던 일, 임정의 특사였던 신규식의 비서로서 쑨원(孫文)을 만나 우리의 임시정부를 승인케 한 일, 윤봉길의사의 홍구(虹口)투탄사건의 거사자금을 마련하고 관련지도자들을 안전하게 피신케 한 일,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에 관한 암호 및 36종의 중요한 암호를 독해해 연합군에게 기여한 일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역사의 귀중한 증언들을 새롭게 읽을 수 있다.

석린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달리 중국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김구 주석의 변공실장으로 대중외교를 전담했기 때문에 '중국통'으로 알려졌다. 또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고 중국정부 지원에 의존했으므로 대중외교가 임정의외교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전담한 사람으로 손꼽는 신규식·박찬익·민필호 가운데 한사람이기도 하다. 이러한 석린의 핵심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국의교사화>는 42년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정부의 승인을 촉구하기 위한 그의 주저로 남아 있다.

## 대중외교 전담했던 '중국통'

42년 중경의 동방출판공사에서 중문(中文)으로 간행한 것을 이 책에 옮겼다. <중한외교사화>는 1921년 10월 임시정부가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인 신규식을 중국 광둥에 특사로 파견하여 중화민국 호법정부와 한국독립 사건을 승인토록 협상케 한 과정을 적은 '남해행'부터 시작된다.

신규식의 수행비서로 이 과정을 지켜보았던

##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 인물에 대한 개별적 조명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최근 지청천장군의 일대기를 비롯해

임시정부의 주요한 임무를 맡았던

### 석린 민필호전기, 홍범도장군의

미공개 자료집 등이 출간되고 있다.

### 이들 책은 왜곡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석린이 남해의 출항에서부터 쑨원 대총통을 회견하고 광복운동을 위한 중국과의 호혜조약 5관에 관해 협의한 후 크리스마스날 아침 상

해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정신문화연구원의 근현대사 국학자료조사연구소에서 홍범도(洪範圖, 1868~1943) 장군에 관한 미공개 자료집으로 출간한 <한국 독립운동사자료집-홍범도편>은 재소한인 혁명가 출신 리인섭으로부터 전해받은 <홍범도 일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홍범도의 구술자전과 함께 재소한인작가 김세일씨가 <소설 홍범도>를 집필하는 동안 항일투사들이 보내온 서신, 연해주의 대표적 무장단체관련 기록 색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늘의 자유로운 생활 뒤에는 50여년전 피흘려 싸운 선열들의 끈질긴 독립투쟁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각지에서 투쟁의 한 자락을 차지했던 인물들에 대한 조명은 어느 면에서 왜곡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점에서 꾸준히 계속돼야 할 작업이다.   
나남/A5신/346면/비매품 — 김지원 기자

## 화제의 책

# 독립운동의 고난에 찬 역사

## <인물로 보는 항일무장투쟁사>

이 책은 반일 독립운동노선의 여러 갈래 중 '무장투쟁'을 견지한 분들의 주장과 활동상을 통해 항일의 고난에 찬 역사를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일제침탈이 시작되던 1905년 이후부터 1940년대까지 무장투쟁의 성격과 독립군의 형성, 독립전쟁의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핀 <총론: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조동길, 국민대 교수)가 일반적 이해를 돕는다.

나머지 6개장에서는 각 시기별 지역별로 무장투쟁 중심의 민족해방운동을 펼쳤던 12명의 활동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던 홍범도와 김좌진(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강도 일본과는 타협할 수 없으며 무장투쟁론을 제시한 신채호와, 역시 무장투쟁 노선을 견지하여 만주지역에 무관학교를 세웠던 이동휘(이균영, 동덕여대교수) 반식민지 상태였던 중국 중경과 연안 등지에서 국민당정부와 공산당정부의 후원과 연대 아래 항일독립투쟁을 지도했던 대표적인 인물 김원봉과 무정(염인호, 국민대 강사)을 소개한다.



또 남만주지역에서 철저한 무력투쟁론자였고 이를 실천했던 이청천과 양세봉(장세윤, 성균관대 강사), 북만주와 미주에 무관학교를 설립, 독립군을 양성했던 이상설과 박용만(윤병석, 인하대교수), 그리고 30년대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전개한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김일성과 최용건(이종석, 세종연구소연구원)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책에서 전개된 12명의 민족해방투쟁 내용은 곧 혁명론, 외교론, 준비론, 무장투쟁론 등 당시 여러가지 독립운동방략으로 논의됐던 흐름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역사비평사/A5신/242면/7000원